ALC 기술개발“ 게걸음"

선경건설 등 외국설비 도입 급급 … 상반기 판매 18만㎥ 그쳐

ALC(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경량기포콘크리트) 국내생산기업들이 자체기술이 미비한 가운데 외국 설비를 도입, 제품 판매에만 급급해 과잉경쟁이 초래되는 등 장기적인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국내 ALC생산기업들의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 대부분 장기적인 시장·제품에 대한 연구 투자없이 외국설비를 도입, 외국 제품의 모방생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도입 현황을 보면, 기린산업·삼익·신라교역이 독일 베르한에서, 벽산은 일본 오노다듀록스, 선경건설은 독일 이통, 쌍용양회는 독일 헤벨, 한국시포렉스는 스웨덴 시포렉스로부터 각각 설비를 도입, 자체적인 기술에 의한 생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ALC 설비현황 (단위 : 1000㎥)

구 분	설비도입	준 공	생산능력
기 린 산 업	독일 베르한	92년 9월	150
벽 산	일본 오노다듀록스	92년 6월	150
삼 익	독일 베르한	92년 7월	175
선 경 건 설	독일 이통	93년 2월	130
신 라 교 역	독일 베르한	87년 1월	100
쌍 용 양 회	독일 헤벨	93년 3월	200
한국시포렉스	스웨덴 시포렉스	91년 6월	200
합 계	-	-	1,115

ALC는 93년 35만㎥를 판매, 92년 13만여㎥에 비해 크게 신장했으며 94년엔 80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성장하고 있으나 이같은 성장은 92년 하반기부터 93년까지 5개 대기업이 신규참여함으로써 생긴 외형적인 성장일 뿐 각 기업별 판매실적은 5만㎥이내이며 94년 상반기 판매도 18만㎥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국내 ALC생산능력은 한국시포렉스와 쌍용양회가 각각 20만㎥, 삼익 17만5000㎥, 기린산업과 벽산이 각각 15만㎥, 선경건설 13 만㎥, 신라교역 10만㎥ 등 총 110만5000 톤에 이르고 있어 공급과잉이 초래되고 있다.

이와같이 대기업의 과잉경쟁으로 신라교역·시포렉스 등은 국내시장보다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경건설의 경우 기존 건축자재 생산이 전무한데도 자체소비와 건축자재시장 진출을 이유로 ALC시장에 뒤늦게 참여해 과잉경쟁과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있으며 94년 상반기 판매실적도 2만여㎥으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경은 고가제품인 Art panel을 생산하고 있으나 블록에 비해 2배정도 고가인데다 아직 국내에서는 제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94년 상반기 2000여㎥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기업들은 블록부분에서 과잉경쟁이 초래되면서 고가품의 보드나 패널 생산으로 서서히 전환하고 있으나 이들 시장이 정착하는데는 수년간의 제품개발과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 단시일내에 과잉상태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수시장의 개척이 여의치 않자 국내 ALC기업들은 비교적 가격이 높은 수출을 통한 활로모색에 주력하고 있는데 주수출국인 대만에도 ALC생산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져 수출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4/10/3>